

블랙펄 '기습 출시'에 삼성 당혹

〈갤럭시S7 엣지〉

SKT, 공식출시 예정 9일보다 이틀먼저 시판 "삼성과 협의"... KT·LG유플러스 8일부터 판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7 엣지 블랙펄(유광블랙)' 모델을 협의된 출시일정보다 앞당겨서 내놓는 등 신경전을 벌이면서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당혹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갤럭시S7 엣지 유광블랙 모델을 통사 3사를 통해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판매에 돌입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7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S7 엣지 유광블랙 모델의 출고기와 공시지원금을 공개하며 판매에 들어갔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하루 뒤인 8일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출시는 말 그대로 상품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제조사의 '공식 출시'가 있기 전부터 제품이 판매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

SK텔레콤 측은 지난 7일 "삼성전자와의 협의를 통해 판매일을 협의했다"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은 달랐다. 당초 이동사 3사가 갤럭시S7 엣지 유광블랙 모델을 출시하기로 협의한 날짜는 9일이었지만 SKT가 이를 어겼다. 이에 두 회사는 판매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겼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갤럭시S7 엣지 블랙펄 판매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팀과의 확인 결과 공식 출시는 9일로 협의가



KB금융 CEO와의 대화 지난 9일 서울 KB금융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된 'CEO와의 대화 행사'에서 윤종규 회장이 사내 기자단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써 당혹감을 감추려 했다.

한 이동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플 아이폰7의 신제품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S7 엣지 유광블랙 모델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아틀라스 리서치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갤럭시S7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한 달 만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7'에 판매량 기준

1위 자리를 넘겨준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인한 여파를 막기 위해 갤럭시S7시리즈에 블루코랄 색상을 추가한 영향 탓으로 분석됐다.

업계 따르면 갤럭시S7 시리즈 판매량은 지난달 11일 갤럭시S7 엣지 블루코랄 색상 출시 이후 하루 판매량이 1만5000대 수준까지 올라갔다.

블루코랄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갤럭시S7 판매량은 하루 1만대 수준이 었다.

더군다나 기존 갤럭시S7 엣지 모델은 32GB와 64GB밖에 없었지만 이번 유광블랙 모델은 128GB 용량으로만 출시됐다.

성수기인 연말을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이 맞물리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유광블랙 모델의 출고가는 101만2000원으로 지원금은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KT 33만원, SK텔레콤 30만원, LG유플러스 28만8000원의 지원금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뉴스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주체 '제작사'"

보험연구원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토론회

자율주행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작사도 사고의 책임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시대 위한 정책수립방향을 논의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과 손해배상"을 통해 "현행 교통사고 관련 책임법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교통사고 책임법제는 대인사고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자 책임이,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완전자율주행시대가 도

래하면 현행 책임법제로는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곤란하고 피해자 구제도 약화된다.

때문에 제작사가 사고의 위험을 통제 및 관리하고 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사고예방이나 안전성 제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법리 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보유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책임을 부담한 뒤 제작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또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단독으로 직접 손해배상하거나 자율주행차 제작사 및 보유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다.

황 연구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기능을 담당하는 자동차 보험의 현실적 운영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

LG전자 V20 '광각렌즈' 외신들 호평

LG전자가 전락 스마트폰 V20가 카메라 기능으로 외신들로부터 연이은 호평을 받고있다고 지난 9일 전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3개의 뛰어난 스마트폰 카메라, 3개의 대륙, 하나의 승자(3 Great Smartphone Cameras, 3 Continents, One Winner)'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LG V20, 아이폰 7플러스, 구글 픽셀을 2개월 동안 사용해 본 결과 LG V20의 카메라 기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그 원인으로 "LG V20는 다른 스마트폰 보다 더 많은 것을 사진에 표현할 수 있으며, 광각 렌즈를 탑재해 넓은 배경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억을 사진에 담아서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LG V20가 단연 최고이며 이것이 카메라의 진정한 가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폰이레나(Phonearena)는 "광각 카메라는 웅장한 건축물, 아름다운 풍경, 단체사진 촬영 시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피사체에서 멀리 떨어져도 찍고 싶은 장면을 한 번에 담을 수 없

는 경우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판드로이드(Phandroid)는 '최고의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구글 픽셀과 LG V20(Google Pixel, LG V20 Cameras are Among the Elites)'라는 기사에서 "V20의 카메라는 색상을 정확히 표현하고 선명하며, 조명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도 탁월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안드로이드 센트럴(Android Central)은 "LG V20 카메라의 포인트는 후면의 8메가픽셀 초광각 렌즈"라고 소개하며 "V20 카메라의 매뉴얼 모드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최고 수준의 카메라를 원한다면 V20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V20는 세계 최초로 전·후면 '광각 카메라'를 탑재해 사진 촬영 성능을 높였다. V20의 광각 렌즈는 사람의 시야각인 120도 보다 넓은 135도 화각을 자랑한다. /뉴스

구독신청 288-9700

금감원, 전 국회의원 아들 채용 비리 수사 의뢰

"당시 총무국장 이상구 부원장보 고발... 검찰 조사 시 채용 청탁 여부 확인될 것"

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 L씨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씨는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L씨의 부친은 2012년까지 금감원을 감사하는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의원이었고, 2012년 10월 선진통일당을 탈당해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 "내부 감찰은 조사 대상이 현직 임직원

으로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선 혐의가 입증된 당시 인사 실무자(총무국장)였던 이상구 부원장보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 조사가 이뤄지면 최 전 원장과 전직 국회의원의 채용 청탁 여부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올해 9월까지만 해도 금감원 고문으로 활동했으나 감찰 및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내부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이상구(현 업무총괄 부원장보) 총무국장 은 변호사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또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 L씨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실무진의 서류 조작만 밝혀내고 인사 비리 커넥션은 건드리지 못한 터라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부원장보는 검찰 조사에서 뒷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변호사 채용을 할 때 2년의 경력 요건을 두다가 2013년 1년으로 낮췄고, 2014년엔 경력 요건을 아예 없앴다. 없던 전형을 새로 만든 것이어서 책임자금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다만 L씨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인사 취소 등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보면 근로자의 잘못이 없을 때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며 "채용 과정의 문제여서 인사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 당시 인사 라인에 있던 김수일(현 부원장) 부원장보, 이 국장, 인사팀장과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